

“국민이 주연인 자랑스러운 역사 다음 세대에 알려야”

‘나의 촛불’ 연출 김의성·주진우

배우 김의성과 기자 주진우가 공동 연출자로 이름을 올린 ‘나의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맞서 수많은 시민이 광장으로 모였던 2016년 촛불 시위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다.

영화에는 국정 농단 사태의 주요 제보자였던 고영태와 보도의 중심에 있던 손석희 당시 JTBC 앵커뿐만 아니라,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수사팀장,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인터뷰이로 등장한다.

두 감독은 24일 화상 인터뷰에서 “이들은 모두 조연에 불과하다”며 “주인공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해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영화는 두 사람이 MBC의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던 때 나눴던 대화에서 시작됐다.

라디오에서 탄핵 당시 국회에서 있었던 비화들을 들은 김 감독이 “다른 증언을 모아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주 감독은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가 촛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럼 (촛불 혁명을 만든 진짜 주인공인) 시민은?”이라는 당연한 물음은 영화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됐다.

두 사람은 “이게 (영화가) 되겠냐?”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인류 역사에 이렇게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민주혁명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물이 없었기에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처음부터 직접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주 감독은 “다른 훌륭한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바로 영화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며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기다리다 결국 우리가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은 촛불 혁명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오는 2월10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나의 촛불’.



촛불 관련 방송인·수사팀·정치인 등 등장

시위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영상 실려

박근혜 측근·당시 여당 인사 이야기 많이 못 담아 아쉬워

해당하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흐른 2018년 말께 시작됐다.

두 감독이 개인 SNS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고, 다양한 사연과 함께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쇄도했다.

그렇게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인터뷰에 나섰고, 시민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다큐멘터리의 일부가 됐다.

인터뷰에 나선 시민들은 당시를 되돌아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지만, 촛불 민심을 따라가지 못해 비난받았던 여

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두려웠다”고 고백한다.

두 감독은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다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이정현, 조원진, 나경원 등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당시 여당 인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인터뷰를 하겠다고 날을 잡아 놓고도 도망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애초 지난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영화는 코로나 19로 일정이 미뤄지며 대선을 앞두고 개봉하게

됐다.

특히 당시 수사팀장으로 인터뷰했던 윤석열 검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 감독은 “누구를 저격하고 누구를 돕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영화의 주연은 시민이고 정치인은 조연인데, 그들은 조연 중에서도 그야말로 엑스트라”라며 선을 그었다.

김 감독은 “당시 너무 어려서 촛불에 대한 기억이 없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런 멋진 일을 해낸 사람 중의 하나였다는 걸 자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 감독 역시 “학생들에게는 세계 정치사에서 전무했던 역사가 이렇게 쓰였다는 걸 알려주고, 촛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고령 MC 송해 96년 인생사 트로트 뮤지컬로 안방서 본다

KBS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대한민국 최고령 MC 송해의 96년 인생사가 뮤지컬로 만들어져 오는 설 연휴 안방을 찾는다.

KBS는 설 대기획으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를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는 송해의 인생을 트로트 뮤지컬로 재구성한 것으로, 송해뿐 아니라 가수 정동원, 이찬원, 영탁, 신유 등이 나이별 송해 역할을 맡아 무대에 오른다.

KBS는 “이번 방송은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지켜온 국민 MC 송해를 위해 후배 가수들이 꾸미는 헌정 공연이자 송해가 시청자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1일 오후 7시 50분 KBS 2TV 120분간 방송.

/연합뉴스

노포의 비결은

KBS 설특집 ‘한국인의 밥집’



KBS 1TV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오후 7시 20분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노포와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 이야기를 담은 ‘한국인의 밥집’ 3부작을 설 특집으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1부 주인공은 66년 전통 대구 추어탕집 차상남 사장이다. 1957년 어머니와 함께 추어탕집을 연 차 사장은 청방배추와 미꾸라지를 넣어 끓이는 경상도식 추어탕 단 하나로 가게를 찾는 단골들을 맞는다.

2부는 전남 나주 곱탕집 김형선 사장이 113년간 곱탕집을 이어온 철학을 전한다. 맛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라고 믿는 김 사장은 매일 새벽 2시에 출근해 고기 등 재료들을 확인한다.

3부에서 소개하는 전북 부안 순댓국집 채영석 2대 사장은 전통 방식으로 피순대를 만들고, 장작 불로 순댓국을 끓여낸다. 아버지가 가게를 열 때부터 고집해 온 방식을 고수하며 순댓국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다.

/연합뉴스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에 “안전 규정 마련”

KBS 촬영 중단...방송 재개일 미정

KBS가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으로 불거진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자 재차 사과하며 동물 안전과 관련한 제작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KBS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여러분과 관련 단체들의 고언과 질책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면서 “자체적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외부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또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뢰 받는 공영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생명 존중의 기본을 지키는 KBS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태종 이방원’ 관계자에 따르면 제작진은 현재 드라마 촬영을 멈추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방송 재개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태종 이방원’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일주일 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과했으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배우 고소영, 공효진, 김효진, 유연석, 가수 태연



등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태종 이방원’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인원은 24일 오후 4시 20분 기준 6만4000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계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 동구 자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